‘손’으로 UAE 수비 흔든다

손흥민

벤투호, 내일 밤 8시 고양서
월드컵 예선 아랍에미리트전
승점 3점 꼭 따야할 경기
손흥민 3경기 연속골 도전

벤투호가 아랍에미리트(UAE)를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는 최종예선 2위권 굳히기에 도전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UAE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5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A조 6개 팀 중 이란(승점 10·3승 1무)에 이은 2위(승점 8·2승 2무)에 자리해 있다.

각 조 2위 팀까지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가운데, 3위 레바논(승점 5)의 승점 차는 3점이다.

한국은 통산 상대 전적에서 UAE에 12승 5무 2패로 앞선다. 최근 흐름을 놓고 봐도 UAE가 ‘난적’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조 추첨이 이뤄졌을 때만 해도 UAE는 상위권에서 순위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팀이다.

UAE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71위로 A조 나라 중 이란(22위), 한국(35위)에 이어 3번째로 높다.

그러나 UAE는 4차전까지 1승도 올리지 못하고 3무 1패에 그쳤다. 레바논(승점 5)에 밀려 조 4위(승점 3)로 내려앉아 있다.

UAE가 최종예선에서 기록한 4실점 모두가 후반전에 나왔다. 벤투호는 후반 중반 이후 두드러지는 UAE 수비진의 체력 저하와 수비 불안을 잘 공략해야 한다.

홈그라운드의 이점 위에서 벤투 감독이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유럽파 공격진의 기량을 온전히 끌어내기만 한다면 UAE의 수비를 공략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전망이다.

홈에서 열린 시리아와 3차전(2-1 승리)에서 천금 같은 결승골, 이란과의 원정 4차전(1-1 무승부)에서 선제골을 넣은 손흥민은 UAE전에서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다만, 토종과 남미 출신 귀화 선수들이 조화를 이룬 UAE 공격진은 벤투호가 확실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5차전을 앞두고 9일 오후 경기 파주트레이닝센터(NFC)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UAE 프로리그에서 2021-2022시즌 4골 4도움을 기록 중인 골잡이 알리 맙쿠트가 최전방에 선다. 좌우 측면에는 발 빠르고 발재간이 좋은 남미 출신 카이오와 파비오 리마가 배치돼 맙쿠트를 지원한다. 공격이 안 풀릴 때면 지난 시즌 프로리그에서 11골을 넣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백업 스트라이커 세바스티안 탈리아부가 교체로 들어간다.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은 “손흥민 같은 특출난 선수를 제외한다면, 맙쿠트는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최상급 공격수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면서 “맙쿠트와 귀화 선수들이 포진한 UAE 공격진을 잘 막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에 공수의 주축인 황의조(보르도)와 김영권(감바 오사카)을 부상으로 불러들이지 못했다. 벤투 감독은 권경원(성남), 박지수, 정승현(이상 김천) 등 현재 센터백 자원 중에서 김영권 대신 김민재(페네르바체)와 짝을 이뤄 UAE 공격진을 막아낼 선수를 잘 선택해야 한다.

손흥민, 황인범(카잔), 김민재가 소속팀의 경기 일정 탓에 대표팀에 늦게 합류하는 점은 변수다.

황인범은 9일 오전, 손흥민은 오후에 대표팀이 훈련 중인 파주 NFC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민재는 같은 날 저녁에야 합류할 수 있다.

손흥민과 김민재는 UAE 경기 전날인 10일 훈련에서 한 번만 동료들과 발을 맞추고 실전을 치러야 한다.

한편, UAE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관중을 100% 받는 A매치 홈 경기다. 국내 A매치가 유관중으로 치러지는 것은 지난 6월 레바논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광주FC 외국인 선수들 “K리그1 잔류, 포기는 없다”

알렉스, 포항전 자책골 이끌어
헤이스, 첫 필드골 페이스 상승
조나탄, 남은 2경기 ‘조커’ 기대

알렉스

헤이스

조나탄

광주FC의 외국인 선수들이 끝까지 가는 승부를 이끈다.

광주는 지난주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3일 안방에서 만난 FC서울과의 경기에서는 지옥을 맛봤다.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김종우의 골을 시작으로 후반 24초 이찬동, 후반 5분 엄원상의 연속골로 3-0을 만들었지만, 3-4 패를 기록했다.

역전패의 충격을 안고 광주는 지난 7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포항이었다.

최악의 상황에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하게 된 만큼 광주의 열세가 예상되는 경기였다.

하지만 절박함으로 상대를 몰아붙인 광주는 2-1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꺼져가던 잔류 불씨를 살렸다.

팀의 추락을 지켜보던 두 외국인 선수 알렉스와 헤이스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좋은 활약을 선보였다.

서울전 대역전패의 시작점에는 공교롭게 알렉스가 있었다. 알렉스는 3-0으로 앞선 후반 19분 의도치 않은 골을 기록했다. 서울의 코너킥 상황에서 왼쪽에서 넘어온 공이 문전에 있던 알렉스의 엉덩이를 맞고 광주 골대를 갈랐다. 이 골을 시작으로 서울은 거센 추격에 나서 후반 42분 승부를 뒤집는 고요한의 역전골까지 만들었다.

알렉스는 충격의 패배를 지우는 시원한 중거리 슈팅으로 포항전 승리의 전면에 섰다.

전반 추가 시간 광주의 마지막 공세가 전개됐지만, 공은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에 막혀 뒤로 흘렀다. 중원에서 공을 잡은 알렉스가 침착하게 숨을 고른 뒤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말 그대로 ‘대포알’ 슈팅이 포항 골대에 이어 골키퍼 이준을 맞고 골망을 흔들었다.

골키퍼의 자책골로 남았지만 알렉스의 진가를 보여준 무시무시한 슈팅이었다. 서울전 자책골의 아쉬움을 자책골로 털어낸 알렉스. 헤이스도 기대에는 부족했던 골을 더하며 미안함을 덜어냈다.

후반 2분 왼쪽 먼 거리에서 헤이스가 묵직한 중거리 슈팅을 날렸고, 자로 잰듯 공은 그대로 골대를 갈랐다. 헤이스의 시즌 4호골과 함께 광주는 포항전 첫 승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팀은 물론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골이었다.

앞서 헤이스는 5월 23일 수원삼성, 8월 15일 인천, 8월 24일 성남전에서 골을 기록했다. 모두 페널티킥 상황에서 만든 골이라 이번 골은 더 의미가 있었다.

헤이스는 이번 골로 ‘승리의 사나이’의 면모도 보여줬다.

헤이스는 올 시즌 4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헤이스가 공격 포인트를 장식한 8경기에서 팀은 6승 2패를 기록했다.

이제 광주에 두 경기만 남았다. 27일 성남 원정에 이어 12월 4일 안방에서 열리는 인천과의 시즌 최종전을 통해서 올 시즌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11위 강원이 3점, 10위 성남이 5점 차 밖에 있는 만큼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하는 절박한 승부다.

알렉스와 헤이스는 올 시즌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헌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 노력에 비해 결과가 아쉬웠지만, 결정적인 순간 실력 발휘를 하며 가장 극적인 승리를 합작했다.

여기에 부상으로 자취를 감췄던 공격수 조나탄도 앞선 포항전을 통해 광주 데뷔전을 치르면서 전망을 밝혔다.

골키퍼 이준의 퇴장 상황과 맞물려 채 1분도 그라운드를 누비지 못했지만 조나탄이 정식 경기에 나서면서 남은 두 경기에서 ‘조커’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경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광주는 조나탄까지 더해 외국인 선수들로 ‘필승 전력’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의 발에 광주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FC바르셀로나 신임 감독으로 돌아온 ‘전설’ 사비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신임 감독 사비 에르난데스(41·스페인)가 8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홈구장 캄 노우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비 감독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다. 지난 2015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만 선수 생활을 한 사비 감독은 17시즌 동안 767경기를 뛰며 25차례나 리그 및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전설’이다. /연합뉴스

‘7골 폭발’ 광주-서울전 K리그1 35라운드 베스트 매치

7골이 폭발한 광주-서울전이 35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K리그1 35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대구 에드가가 멀티골로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2-1승리를 이끌며 MVP에 선정됐고,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 FC서울의 경기가 베스트 매치로 꼽혔다.

이 경기에서 광주는 김종우-이찬동-엄원상의 연속골로 후반 5분 만에 3-0의 리드를 잡았지만, 서울에 내리 4골을 허용하며 3-4 패배를 기록했다.

후반 19분 알렉스의 엉덩이를 맞은 공이 광주 골대로 향한 뒤 팔로세비치, 강성진의 득점에 승부가 3-3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후반 42분 서울 고요한이 승부를 뒤집는 역전골을 장식했다.

광주에게 충격의 패배를 안겨준 서울이 베스트 팀에 이름을 올렸고, 팀의 대역전극을 완성한 고요한(MF)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